

## 사해 문서 연구

오병세 지음 / 개혁주의신행협회 발행.  
국판 반양장 / 232면 / 값 3,000 원.

심 군 식

(목사, 아동 문학가)

본서의 저자는 고신대 신학대학원 교수요, 나에게는 은사시다. 저자는 교단에서 신학을 강의하여 오면서 특별히 사해 문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약 30년간 연구한 것의 일부를 금번에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본서의 내용은 전 2부로 1부는 “사해 문서 연구”이고, 2부는 “성경 고고학”이다.

1부의 “사해 문서 연구”는 구약에 뜻을 둔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좋은 연구 논문들이다.

1947년 사해의 서북부 끝에서 산 쪽으로 붙은 굴속에서 귀한 사본들이 발견되었다. 1965년까지 발견되어 알려진 사본은 총 175부 이상인데 에스더를 제외한 구약의 모든 부분이 다 발견된 셈이다.

그 중 제일 많은 것은 시편인데 27부이고, 그다음이 신명기로서 25부이다. 그다음이 이사야서 18부이

고 창세기, 출애굽기가 각각 15부이다. 이런 순서로 사본은 그 수가 175부나 된다.

성경 외에도 성경을 해석한 주석들과 쿰란(Qumran) 회중의 시편들과 여러 가지 규칙들이다. 이러한 사본들과 기타 문서들은 성경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저자는 “제 1부 사해 문서 연구”에서 7개의 논문을 통하여 사해 문서를 설명, 인용하고 각편마다 결론에 가서 사해 문서가 성경 연구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특히 「3. 사해 이사야 문서 연구」와 「4. 사해 하박국 주석 연구」는 중요한 구절들을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마소라 본문과 비교, 검토하도록 하였다.

쿰란의 문서들은 신약과 유사한 점이 있어 신약 배경 연구에 큰 도

움이 된다.

“제2부 성경 고고학”에서는 저자가 성경 고고학에 뜻을 두고 연구하여 온 단편들이다.

성경 고고학은 학문의 한 분야라기보다 지식을 보충하는 한 방법이에요, 일반적 확증을 제공하고 성경 해석에 도움을 주며 연대 측정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준다.

창세기 연구에는 누우지(Nuzi)의 토판과 바벨론 토판이 발굴되어 옛 족장들의 생활상과 당시 사회적 배경 설명에 도움이 된다.

고고학이 발전되고 여러 토판이나 고적들이 발굴됨으로써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성경의 신실성이 더욱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본서는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고고학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대단히 유익한 책이다. 따라서 본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다.

1. 논문이 단편이므로 읽는 데 부담을 주지 않는다.

2. 가장 흥미로운 성경 고고학의 중요한 부분만 취급하고 있다.

3. 문장이 설명체가 아닌 약술체로서 독자로 하여금 독서의 피로에서 해방시켜 준다.

4. 내용이 간단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5. 고고학에 문외한이라도 쉽게 이해되고 친숙하여지며 많은 지식을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책이다.

## 박윤선 박사 기념 논문 현상 모집

\* 개혁주의신행협회에서는, 본 협회의 초대 회장인 고 박윤선 박사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 목 : 「박윤선 박사의 성경관」
- 원고 매수 : 70매 (200자 원고지) 내외
- 현 상 금 : 100만 원 (당선작 1편 50만 원, 가작 5편 각 10만 원)
- 마 감 일 : 1989년 9월 30일
- 응모 자격 : 제한 없음
- 당선작 발표 : 본지(「개혁 신앙」) 겨울호 (12월 1일자 발행)
- 기 타 : 응모 원고는 반환치 않으며, 응모자에겐 기념품 증정

개혁주의신행협회 / 120-013 •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3가 3-47  
전화 312-6758 • 392-4716